

데스크 시국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생각할 수도, 믿기지 않는 비통한 재난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지난 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헬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해밀톤 호텔 옆 폭 3-4m 내리막 경사의 좁은 골목길에서 수천 명이 연쇄적으로 영키면서 무려 156명이 압사하고 151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후진국형 재난인 군중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충격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는 와우이파크 붕괴(1970년), 대한항공 여객기 피격(198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2003년) 등과는 또 다른 차원이다. 산업화 시대도 아닌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골목길에 갇혀 압사하는 믿기 어려운 참사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2014년)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이번 참사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3년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헬러윈 축제를 맞아 이태원에 인파가 몰려들 것은 전작

은펜칼럼



이병우
우아포인트연구소 대표

"나는 대통령 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며, 이 직책을 맡지 않았어야 했다." 미국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 편지에서 밝힌 말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는 별별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당선 이유도 다양하다. 이 중에서 대통령령처럼 생겼다는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 바로 워렌 하딩이다.

하지만 하딩은 지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소박하기는 하나 성실하지 못했고, 놀기를 좋아했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대통령 직무보다 포커 게임, 필조본 위스키, 외도를 즐겼다. 금주법 시건인데도 백악관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밤을 새워 가면서 위스키를 마시고 포커판을 벌였다.

워렌 하딩은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사람의 외모와 감성만을 보고 판단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워렌 하딩의 오류'라고 부르게 됐다. 워렌 하딩에 관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을 간추리면 다음

기 고



손세창
광주연합기술지주 총괄본부장

정부가 지자체로부터 재원을 받아 기업 지원을 하는 곳은 대부분 연말이 되면 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에 10 월중부터 교육·워크숍·세미나 등 떠나없이 행사를 치른다.

7년 전 이맘때도 다르지 않았다. 유관기관들이 각종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같이 하자'였다. 그렇게 2016년 10월 24일 광주연합기술지주 출범식과 함께 10월 마지막 주에 17개 기관이 일주일간 공동으로 행사를 치렀다. 이것이 '광주 기사창투 한마당'의 시작이었다.

기사창투 한마당은 기술·사업화·창업·투자의 앞 글자를 만 것인데, 듣는 사람에게 처음엔 낯설다. 7회째를 맞은 올해 기사창투 한마당 개막식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 장도 "이름만 듣고는 중세시대 기사가 창과 투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기사창투'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까지 설명하는 일이

재난 공화국

예견됐다. 당일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고 참사 전날에도 수만 명이 거리를 가득 채웠다.

그렇다면 당국은 인파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관리 대책을 세웠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행사가 집중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는 유난히 좁은 경사가 있는 골목이 많다. 인파가 골목에 밀집되지 않도록 우회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했다. 또 일방통행로 설치와 골목길 진입 통제, 이태원역 무정차 등 적극적인 사전 안전 대책도 요구됐다. 하지만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지 않은 안이한 탁상 대책의 결과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참사에 대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해 안전 대책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소요와 시위로 인력이 분산됐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면피성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담당 장관의 이러한 인식은 재난이 결국 무책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시민들의 질서 의식도 아쉬운 부분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한 발짝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우선하는 행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축제 분위기에 취해 안전의 문제가 간과된 것이다. 일부 시민들이 장난으로 밀치면서 참사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그 어떤 원인도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당국의 실책을 덮을 순 없을 것이다.

반면 사고 직후 119 구조대의 손이 모자라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넘어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주무르며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

해 온몸을 던진 시민 의식은 참담함에 빠진 대한민국 사회를 그나마 위로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의 겉모습은 선진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후진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선진 사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위험 수준의 군중 밀집도를 예측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안전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도 초등학교부터 철저히 교육시켜 사회 전반에 단단하게 뿌리 내렸다.

시민 안전은 국력의 가늠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간 압축 성장을 거듭했으나 내적인 안전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 '빨리빨리'로 압축되는 성과 위주의 사회적 가치 체계로 인해 화재·붕괴 사고는 물론 각종 산업 재해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안전과 배려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 의식 역시 아쉬움이 많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참회록을 쓸 시간이다. 이번 참사의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는 철저한 대책 마련도 곁들게 된다. 정부와 사회 전체의 적절한 반성을 통해 시민 의식의 전환도 이뤄야 한다. 재난의 반복은 국가적 불신을 만들고 시민의 안전은 국력을 만든다. 보다 강화된 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소중한 젊은이들을 여차구니없는 사고로 보낸 데 대한 우리 모두의 책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어쩌다 대통령'의 추억

과 같다.

첫째, 어쩌다 대통령이 됐다. 처음 후보로 나섰을 때 하딩은 한참 뒤쳐져 있어 포기하려고 했다.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서로 양보를 거부하자 당 중진들이 차선책으로 후보 2진 중에서 하딩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당 지도부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다.

시대적 배경도 하딩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전임 대통령 워드로 윌슨의 고매함에 실증 난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답게 생기고 진절만 하딩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변화와 개혁은 1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유명 무실하게 됐고 미국인들은 개혁과 국제 문제에 대해선 환멸을 느꼈다. 하딩의 선거 구호는 '정상으로의 복귀'(back to normalcy)였다.

둘째, 부유한 재력가의 딸과 결혼한 후 인생이 바뀌었다. 소박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하딩이 공직에 나가게 된 것은 순전히 아내 플로렌스의 극성 때문이었다. 그는 야심 있는 아내의 도움으로 외모와 사교성을 활용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남편의 출세에 깊이 관련한 플로렌스와 오하이오 정치 협찬업인 해리 도허티의 공작에 의해서 주 상원의원이 되었고 대권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

셋째, 인사의 난맥상이다. 하딩은 이 나라의 최고 지

성을 각료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의 인사는 정실에 얽매었다. 주요 인사는 아내 플로렌스의 강력 한 요구로 이루어졌고, 그녀는 정기적으로 점성술사에 가서 점을 봤다. 이 점성술사의 조언에 따라 내각 인사와 다른 행정부의 자리가 배정되었다. 하딩은 자신의 측근들을 내부장관과 법무장관과 같은 요직에 임명 했는데 이들은 후에 부패 스캔들의 핵심 장본인들이었다.

어쩌다 대통령에 당선된 하딩은 스스로 "나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토로하곤 했다. 책임을 떠넘기고 제대로 보지 않는 바람에 그가 재임한 시기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패한 시기로 기록되었다. 하딩은 재임 2년 3개월 만에 여행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하딩은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 조사 때마다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100년 전 미국의 '어쩌다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이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제 역사는 짧지만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에서도 '어쩌다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이다. '어쩌다 대통령'은 진보 보수 언론 모두 인정하는 용어이고 능력과 자질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선출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어쩌다 대통령'의 추억을 가지고 업적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워렌 하딩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社說

'군중 피난' 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시급하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헬러윈 참사'는 다중이용시설 사고를 피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군중 피난' 형태의 인재였다.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유사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헬러윈을 앞두고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10만 명기량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다. 특히 해밀톤호텔 옆 폭 4m의 좁은 내리막 길에 인파가 몰려 뒤엉키면서 대형 압사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용철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는 재난·재해가 아니라 군중 피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중 피난 사고는 지진이나 화재·붕괴·침수 같은 재해와 무관하게 군중이 사고를 피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하지만 현재 정부나 지자체는 군중 피난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태원은 주말이면 늘 젊은 인파가 운집하는 곳이고, 사고 당일에도

경찰과 지자체는 10만 명기량이 좁고 제한된 공간에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질서 유지나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때 대처할 매뉴얼도 없었다.

유사한 사고를 막으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첨단 영상 기술을 활용해 군중 밀집도를 정확히 측정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리적 특성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그에 적합한 매뉴얼을 만들고 소방·경찰·지자체 등의 역할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대규모 행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와 소방·경찰 당국이 인파 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비상 계획을 가동한다고 한다. 압사 방지를 위한 인원 제한과 보호 펜스 설치, 비상 공간 확보 등이 꼽힌다. 군중 피난 때는 익명성으로 인한 무질서로 통제가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비한 시민 안전 교육과 행동 지침 마련도 서둘러야겠다.

동북댐 갈등 해소 광주·전남 상생 협력 전기로

동북댐 관리권을 둘러싼 광주시와 화순군의 해묵은 갈등이 마침내 해소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복규 화순군수는 그제 화순군 이서면 동북댐에서 '동북댐 수질 개선 및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7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를 공동시켜 동북댐 정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의 성과다.

동북댐은 지난 1986년 광주·전남이 광역 단위로 분리된 후 식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광주시와 지역 개발을 바라는 화순군의 입장이 수십 년간 대립하면서 갈등의 중심에 섰다. 한때 이번 협약을 양 지역이 협력의 물꼬를 튼 것이다. 식수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타 지역 지자체와 대조된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동북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총괄 관리하고, 화순군은 관광 명소인 적벽 투

어 구간내 시설물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들은 동북댐의 맑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고, 화순군민들은 적벽 일대 관광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북댐 관리청인 광주시가 총사업비 233억 원 가운데 90%를 10년간 나눠 출연해 댐 계획 홍수위 5km 이내 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적벽 일대 관광 활성화와 댐 주변 생산 기반 조성으로 주민 정주 여건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상생 협약은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광주시와 전남도에는 아직 광주군 공항 이전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광주와 전라도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다져야 한다. 시도는 이번 협약을 상호 협력과 상생 발전의 전기(轉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17년 8월 24일 밤, 식당이 준비한 광주 시내 대로변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30여 분간 폭행을 당했다.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며 짓밟고 때려 전치 7주의 부상을 입히는 동안 주변에 수십 명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지켜볼 뿐이었다.

2018년 7월 4일에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 교차로에서 119구급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내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놓고 논란이 일었고,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형성됐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신약성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향하던 유대인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자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도왔다는 내용이다. 동족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 지나쳤는데 유대인과 적대 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은 나그네를 가족에 태워 주고 여관비를 대신 내줘 목숨을 구했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의미

착한 사마리아인법

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다. 법과 도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강제성에 있다. 독일 법학자 에빙(hering)은 "강제성 없는 법은 타지 않는 촛불과 같다"고 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강제력을 부가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주장이다.

이태원 헬러윈 참사를 계기로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과 살기 위해 골목 안 가게로 피하려는 사람들을 가게를 지키는 이른바 '가드'들이 막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선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한 나라가 적지 않다. 프랑스는 고의로 구조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구금, 폴란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몇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선의로 나선 조치에 대한 면책 조항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규정한다는 점제하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정필수 사회탐담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주최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